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 심사 보고서

청원 번호	36
----------	----

2025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2월 9일, 이종열 외 4,455명
- 나. 소개의원 : 이은림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1일
- 라.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 채택)

## 2. 청원의 요지

### 가. 청원이유

-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공사 중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임시 진입로가 공사 완료 후 철거됨에 따라 현재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주민들이 수락고가를 통해 우회진입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혼잡 및 이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진입램프 신설을 청원함.

## 나. 주요내용

-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 진입로가 공사 완료 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평균 800m 이상을 우회하여 수락고가를 이용해야 하며 수락고가 진입로와 마들로~노원교 사거리 구간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이 더욱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불편으로 주민들은 통행 동선 증가, 이동시간 지연, 안전사고 위험 확대 등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 이동권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주민들은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바로 연결되는 진입램프의 재설치를 요청하며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착수를 요구함.

## 다. 청원소개의견 요지(소개의원: 이은림 의원)

-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를 통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함.
- 본 청원은 현재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교통 불편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
-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 진입로

가 철거됨에 따라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성수방향) 직결이 단절됨.

- 이로 인해 수락고가 우회 진입에 따른 교통량 집중, 마들로 및 노원교사거리 일대의 정체 심화, 이동시간 증가 등 주민들의 반복적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우회 동선은 평균 800m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상도교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진입 동선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락고가 및 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통행시간 절감, 도로망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청원은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램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의 임시 진입로를 철거함에 따라 야기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그림]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진입(현재)

- 해당 임시 진입로는 2018년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 상도지하차도 구간 공사 시행 시 상도교 노원구 방면 차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설치·운영했었으나, 공사 완료 후 임시 진입로 철거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진입이 불가해졌음.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800m 이상을 우회해 수락고가에서 진입해야 하며, 수락고가 진입로(교통량 9,200대/일)와 마들로에서 노원교사거리 좌회전 구간(교통량 3,500대/일) 등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에서도 통행 비효율 및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상도교를 확장(우회전 전용차로)해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진입 연결램프를 신설하는 진입로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sup>1)</sup>한 바 있으며,
- 해당 검토결과,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 시 교통수요는 약 4,890대/일로 예측(2030년 기준)되었고, 마들로 및 노원교에서 수락고가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 진입로 설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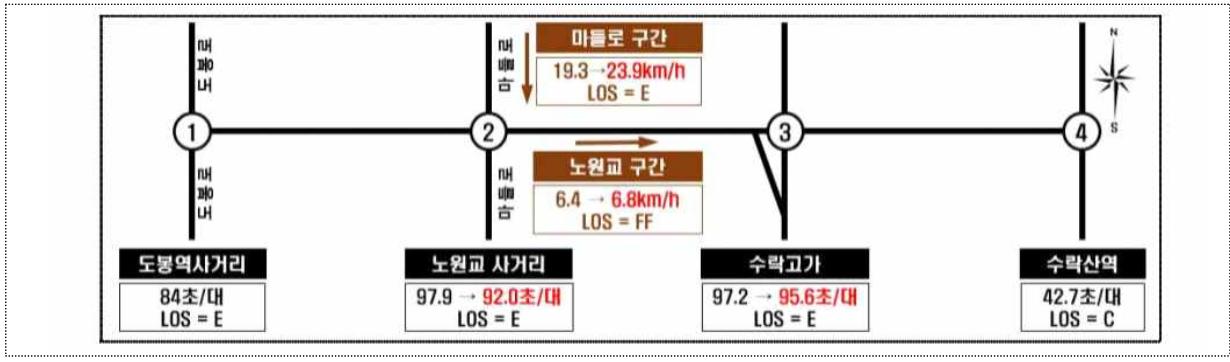
### ○ 설치 개요

- 위 치 : 상도교 ~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 규 모 : 상도교 진입램프 신설 B=5.25m, L=452m  
(상도교 확장 103m, 토공부 182m, 교량 신설 167m)
- 설치방안 : 상도교 확장(우회전 전용차로) 및 동부간선(성수방면) 진입 연결램프 신설
- 소요예산 : 약 300억원 (타당성조사 2.5억 + 설계 10억 + 공사 및 감리 287.5억)

### ○ 진입로 설치 시 교통 분석

-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 시 교통수요는 약 4,890대/일 예측(2030년 기준)
- 마들로 및 노원교→수락고가 구간 교통 소통 개선 효과

1)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 검토(‘25.10.)’



- 다만, 현재는 절차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 소요기간이 5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원인들은 교통혼잡 해소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조속히 타당성 조사와 사전행정절차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겠음.
- 본 청원이 요청하는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사업은 이미 2018년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 상도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하면서 임시 진입램프를 설치·운영하였던 전적이 있는 만큼,
- 당시 임시 진입램프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변 수락고가 진입로 및 마들로에서 노원교사거리 좌회전 구간 등의 교통량 분담효과 등이 일부 검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 서울시는 2018년 임시 진입램프 운영 당시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초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채택(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 의견서

- 청원명 :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  
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재난안전실)
- 처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채택의견 :
  - 본 청원이 요청하는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사업은 이미 2018년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 상도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하면서 임시 진입램프를 설치·운영하였던 전적이 있는 만큼,
  - 당시 임시 진입램프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변 수락고가 진입로 및 마들로에서 노원교사거리 좌회전 구간 등의 교통량 분담효과 등이 일부 검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 서울시는 2018년 임시 진입램프 운영 당시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서식4-6-3> 청원요지서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36		접 수 연 월 일	2025. 12. 9.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성 명	이종열 외 4455명		
소개의원	이은립		소속위원회	도시안전건설
건 명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안전건설			

### ○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들은 도봉구 및 인근 지역 주민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교통혼잡 및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어, 현재는 동부간선 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하며,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진입으로 교통혼잡 가중, 마들로 및 노원교 사거리 일대의 정체 심화, 이동시간 증가 등 주민들의 반복적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상도교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진입 동선 단축과 수락고가 및 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등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조치를 해줄 것을 청원함